베트남에 첫 한국 사찰 세웠다

호치민시 관음사 7년만에 정부 승인

매달 스님초청법회…교육등 복지사업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정부 승인을 받은 최초의 한국 사찰이 개원돼, 현지인과 교민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는 포교와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호치민시에 개원한 관음사(주지 정인)는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최초의 한국 사찰로 현지 교포 사회에서 정신적 귀의처로 각광받고 있다.

개원법회가 열렸던 7월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의 법회를 연 것을 비롯 매월 한차례 한국의 스님을 초청, 법회를 개최하는 관음사는 지난 14일 고운사 주지 법조스님 조실 추대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사 개원을 위해 7년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 주지 정인스님, 관음사 총무 보각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베트남 승려협의회 회장 탑틴 스님을 비롯 교민불자, 현지인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관음사는 개원 당시 20여명에 불과하던 법회 인원이 한국 사찰에 거는 현지의 기대를 반영하듯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불교와는 사뭇 다른 베트남 불교 의식에 이질감을 느껴오던 불자 교포들은 반가움에 눈물을 흘릴 정도. 법당을 찾아 1000배를 하거나 참선을 하는 이들과 관음재일, 약사재일, 지장재일, 일요법회 등에 참석하는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관음사 주지 정인스님은 "불교 조각일로 베트남에 왔다가 베트남의 한국인 2세, 3세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어 이분들에게 희망과 신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한국 사찰 건립을 발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관음사는 9월부터 베트남 승려협의회로부터 초등교육과정을 위탁받아 현지 학생 75명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종교시설을 인가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7년의 노력 끝에야 겨우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그나마 지금의 법당은 베트남승려협의회 회장인 탑틴스님의 절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 그러나 관음사는 현재 진행중인 3층 법당 공사를 마무리하는 12월경부터는 매달 1회 한국 스님 초청 법회, 포교와 복지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베트남에서 지원을 받았던 시절이 있듯 이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시기"라는 보각스님은 "3천여명에 이르는 교민들에게는 마음의 귀의처로 또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복지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부터 현지 승려협의회로부터 초등교육과정을 위탁받아 형편이 어려운 현지 학생 75명의 학비와 교육 일체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한국인 2세, 3세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로 이를 위한 재정 충당을 위해 후원회를 결성중이다.

개원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각스님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적 후원과 각종 불서, 법문테잎, 불교용품 등이라고 귀띔한다.

앞으로 전쟁에서 희생된 영가 천도재, 초심자 교육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인 관음사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와 포교로 베트남에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55)674-417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명원문화재단이 19일 조주선다비 제막식 이후 중국 스님과 불자, 차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원팔정다선법(茗園八正茶禪法)'을 시연해 갈채를 받았다.

"무상선사 중국 전통법맥"확인

한국 '조주선사 선차시비 건립 사절단' 訪中

중국 선종의 천년고찰 백림선사(柏林禪寺)에 19일 세워진 조주(778~787)선사 기념비에 중국불교의 500나한으로 모셔진 신라의 정중무상(684~762)선사가 중국 선종의 정통 법맥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됐다. 한국의 '조주선사 선차 시비 건립문화사절단(단장 진제 · 동화사 조실)'과 중국 '백림선사(방장 정혜)는 10월 19일 하북성(河北省) 석가장시(石家庄市) 백림선사 경내에서 조주선사의 선차(禪茶) 기념비(높이 2m) 제막식을 가졌다. 한중 양국 불교계가 조주선사와 무상선사의 선과 차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을 기념, 이번에 조주선사가 선풍을 드날렸던 조주 관음원의 전통이 살아있는 백림선사에 법맥까지 기록한 비석을 공동으로 건립한 것. 이 기념비의 비문에는 신라 왕자 출신의 '정중무상 선사가 일찍이 서촉 땅의 주인이 되어 문하에 마조도일을 두었다(淨衆無相 曾主蜀度 門下高徒 馬祖道一)'는 글을 기록, 정중무상 선사가 달마대사로부터 마조도일에 이어지는 중국선맥의 한 중심에 있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무상 선사

무상선사는 중국의 500나한 가운데 유일한 신라인으로 455번째 모셔진 사실이 최근 밝혀진 바 있으며, 중국의 정중종(淨衆宗)을 일으킨 선사로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7파가 그에게서 비롯됐다.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 월간 '선문화' 회장 동광스님, 하북성 종교청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행사는 헌다에 이은 제막식, 한 · 중 전통다도 시범(表現), '조주 선다일미 사상' 국제학술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중국 하북성=김재경 기자

◇27년 5개월만에 1만일 염불결사를 마친 설산스님의 만일염불 회향법회가 25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봉행됐다.

설산스님 만일염불 다시 발원

25일 회향법회 9백여명 참석

"지옥세계 아예 없고 나무아미타불, 사람마다 금색광명 나무아미타불, 모든 이들 차별 없고 나무아미타불 …"

설산스님 만일염불 회향법회가 25일 금강산 건봉사(주지 영도)에서 9백여 염불행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오전 10시 30분 건봉사 경내에서 시작된 만일염불 회향법회는 염불 1만일(27년 5개월)을 맞는 설산스님의 '나무아미타불' 정진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이어 이번 회향법회에 동참한 도선사, 능인선원, 염불선원, 정토사 신도들과 전국만일염불회 회원들이 목탁과 아미타불 염불 장단에 맞춰 신명나는 염불 대동한마당을 열고 74년 5월 설산스님이 시작한 만일염불 결사를 회향했다.

이날 1만일 염불결사를 함께 참여한 대중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설산스님은 "1만일이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에 불과하다"며 "회향법회는 새로운 만일염불 결사를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서울 정토사에서 만일염불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한·몽 불교 친선협 내년봄 창립

법타스님, 몽골대표단과 합의

한국과 몽골 불교의 교류 확대를 위한 '한몽불교친선협회'가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창립된다.

한몽불교친선협회 창립준비위원장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대표)은 11~14일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를 방문, 몽골불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2001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한몽불교친선협회를 창립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타스님은 "몽골은 800년전부터 티베트 불교를 믿어온 불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교민중 개신교 전도사가 7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포교 열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불교중흥을 도모하고 있는 몽골 불교계를 지원하기 위해 친선협회 창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미학硏 지리산 천도재

민족의 영산이자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한을 간직한 영산 지리산에서 '칼날이여 연꽃이 되라'는 주제로 천도재가 모셔졌다.

민족미학연구소는 28일 고산스님을 모신 가운데 합토합수 의례와 함께 천도재를 지내 지리산 자락의 원혼들을 위로했다. 이어 열린 지리산 살림한마당에서는 민족미학연구소 다도연구회의 선차의례와 오영숙의 한풀이 춤 공연, 김영동의 우리 음악 연주, 김지하 시인의 이야기 마당 등으로 행사의 의미와 뜻을 정리하며 천도재 2001 '칼날이여 연꽃이 되라'를 회향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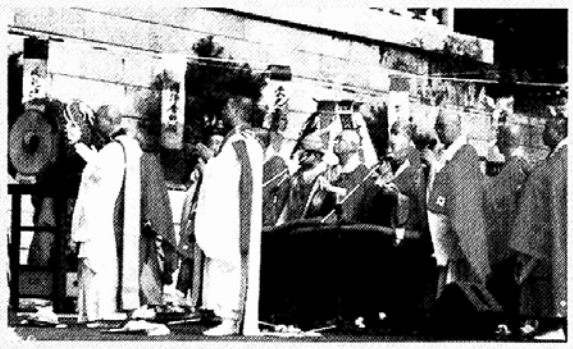
대전 용문복지관 수탁

진각복지재단 2004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이 11월 1일 대전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에 들어간다.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 527평, 건평 604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신축건물로 방과 후 공부방, 조기교육센터, 노인정,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심 가운데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복합복지관으로서의 가능도 보이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노인대학, 성인 및 아동 취미교실, 장애아동 탁아방 등을 개설할 방침이다. (042)942-0144 오종욱 기자



◇영산작법보존회가 20일 금산사에서 불교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소리축제에서 영산작법 공연

12일부터 21일까지 전주에서 열린 '2001 전주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중 '제의와 영혼의 소리' 분야에 영산작법이 공연됐다.

전북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영산작법보존회(석정스님 등 18인)는 20일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세계소리축제의 피날레로 불교음악인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이날 축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향산 스님 등 내외국인 15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4대5온 놓으면 오가되 걸림없어"

삼론종 석봉종정 추대식

삼론종(총무원장 혜승)은 14일 평창 부석사에서 제2세 종정 석봉스님 추대식(사진)을 봉행했다. 석봉 종정은 이날 법어를 통해 "봄이 오니 산은 스스로 푸르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에 머물러 몸을 썩이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듯이 자신을 늘 방하착하라. 사대오온을 놓아버리면 창공을 오고가되 걸림이 없도다"고 설했다.

석봉 종정은 지난 63년 신륵사에서 유연수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64년 사미계, 80년 태고종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87년 삼론종 총무원장, 92년 조동종 종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최근까지 삼론종 부종정으로 종단 중흥과 수행에 정진해 왔다.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 삼론종 일본 대만회장 진지마 스님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경숙 기자

제주 월정사 "전통사찰"

제주시 오라2동 선학원 월정사(月井寺)가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10월 25일 월정사측이 제주도 문화재 자료 제4호로 지정된 목조보살입상과 니조석조여래좌상을 소장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면서 최근 전통 사찰 지정을 요청하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전통사찰로 지정했다. 월정사에는 제주도 문화재 자료 2점외에도 대형 석조여래 입상이 있고 입상 지하에는 천불이 조성됐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